Mobilty at a glance

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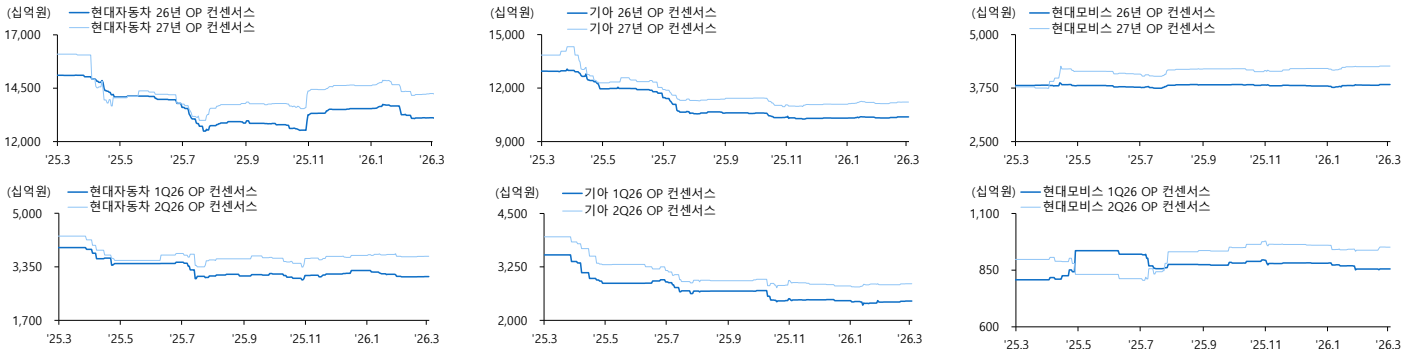
2026.3.5 (목)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배현서 hyeonseo.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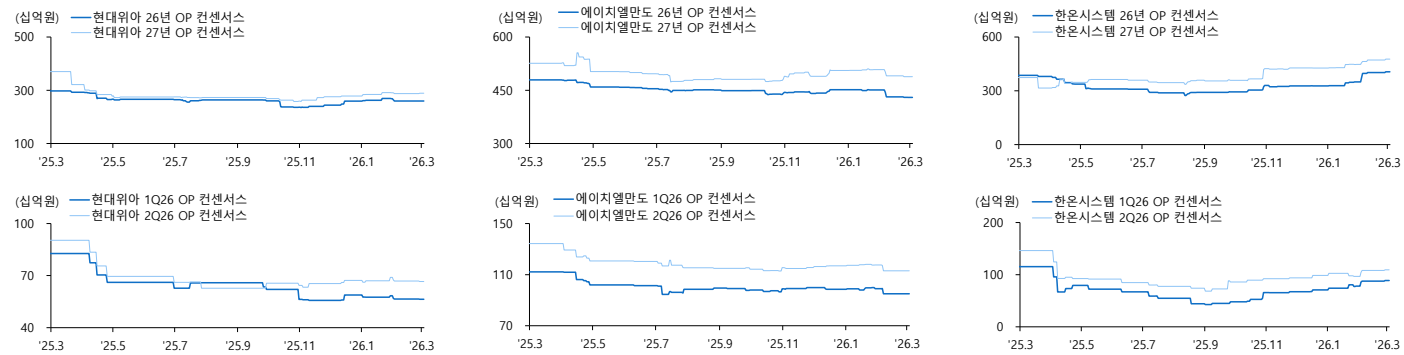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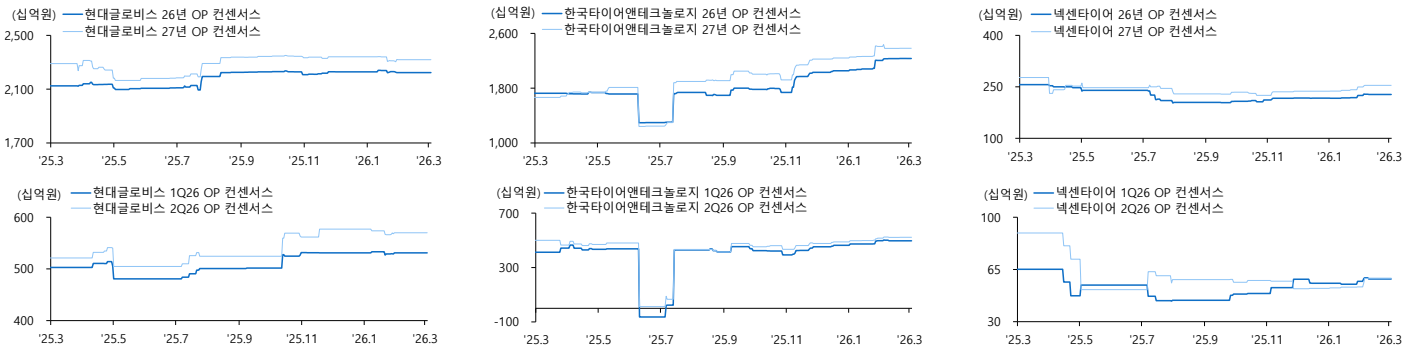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아틀라스, 연구실 떠나 구글 간다… 상용화 최종 점검 (디지털타임스)

Boston Dynamics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초도 물량이 외부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됨. BD 본사에서 생산된 아틀라스는 연내 현대차그룹 RMAC과 Google Deepmind로 순차 인도되어 상용화 위한 마지막 관문을 거칠 예정

https://han.gl/GMhy4

현대모비스, 아틀라스 핵심부품 5종 추가수주 가능성…AS 공급도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Boston Dynamics가 아틀라스에 탑재되는 액추에이터 외에도 핵심부품 5종에 대한 양산을 그룹사인 현대모비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이들 핵심부품은 그리퍼(로봇 손), 퍼셉션 모듈, 헤드 모듈, 제어기, 배터리팩 등 총 5종

https://han.gl/jy3k3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우리도 해운사…중동 사태로 턴어라운드 전망" (뉴시스)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번이 턴어라운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 AW2026에서 기자와 만나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사태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힘

https://han.gl/mKdTn

Elon Musk: Tesla could be first to build AGI in humanoid form (Teslarati)

일론 머스크, Tesla가 휴머노이드 형태의 AGI 개발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예측. X 게시물에서 그는 "Tesla는 AGI를 만드는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아마도 atom-shaping 형태로 이를 구현하는 최초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힘

https://han.gl/w3N5o

"中 휴머노이드 로봇 연 10만대 전망"…생산·생태계 급팽창 (전자신문)

신형관 중국자본시장연구소 소장, AW 2026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 "올해는 기관마다 전망 다르지만 업계에서는 10만대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연간 10만대 생산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라고 밝힘

https://han.gl/P4EOL

현대차·기아, 바퀴 달린 로봇 '모베드' 국내 판매 시작 (조선비즈)

AW 2026에 참가한 현대차·기아, 소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국내 판매 시작. 이와 함께 모베드를 중심으로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다자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완성형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구상

https://han.gl/nCSCL

현대차그룹, 2월 미국서 13만7412대 판매…전년비 5% ↑ (뉴시스)

현대차·기아, 지난달 미국에서 합산 총 137,412대 판매(+5% YoY).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팰리세이드(현대차)와 텔루라이드(기아). 양사 합산 하이브리드 차량 29,279대(+56.4% YoY) 판매 및 전기차는 5,576대(-21.9% YoY) 판매

https://han.gl/ox6ed

테슬라 "AI6 생산 2배 이상 확대"… 삼성에 추가 발주 추진 (디일렉)

Tesla 구매 담당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주 삼성전자를 방문해 2나노 차세대 AI 칩 'AI6'의 파운드리 생산 물량 확대 위한 협의 진행할 예정. 지난해 계약한 물량은 월 웨이퍼 투입 기준 16,000장 수준이며, Tesla가 요청한 추가 물량은 24,000장 규모

https://han.gl/Bd19j

AW 2026 개막…'아틀라스' 등 첨단 자동화 기술 대거 공개 (아이뉴스24)

스마트 공장·자동화 산업전 2026(AW 2026)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도 참가해 제조 혁신 이끌 첨단 자동화 기술 대거 공개. 24개국 500개 기업이 총 2,300개 부스로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https://han.gl/HdawE

EU seeks to stem industrial decline with 'Made in Europe' push (AFP)

현지 시간 수요일, EU는 중국의 경쟁에 맞서 역내 산업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Made in Europe' 규정 발표. 자동차·친환경 기술·철강 등 전략 분야 대상으로 하는 이 제안은 EU의 경쟁력 회복하고, 의존도 낮추며, 일자리 감소 막기 위한 핵심 동력

https://han.gl/yCo5Q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